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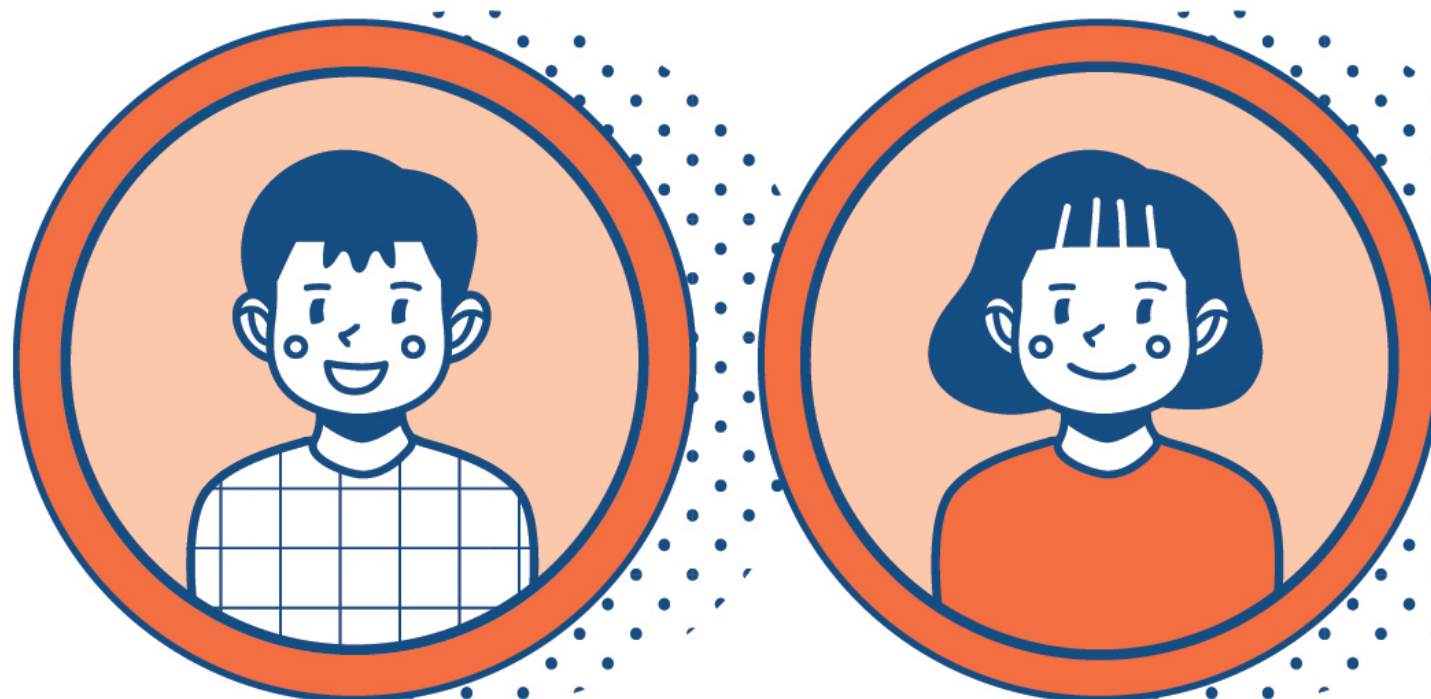
가정통신 2020

제6호 자/녀/사/랑/하/기

운동이 건강한 마음과 뇌를 만듭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46개국 11~17세 청소년들의 운동량을 조사한 결과, 81%의 청소년이 운동 부족이며 우리나라 청소년 비율이 94%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이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 자녀의 운동,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01 정말로 우리 자녀가 원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최근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은 대부분 컴퓨터나 TV, 영화 등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었고, **스포츠 활동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 **스포츠는 30%**로 현실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은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동은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창한 활동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아서 하는 활동을 줄이려는 노력과 신체활동량을 늘려보려는 계획만으로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 운동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운동을 많이 하고 학교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운동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 성적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활발한 신체변화와 기분 변화가 많은 청소년기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하면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학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습시간 동안 집중력,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03 운동해야 뇌가 발달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만 15~18세 아이들의 뇌를 관찰해보니, **운동량이 많은 아이일수록 대뇌피질 뇌백질 구조적 연결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뇌의 연결성이 높다는 것은 뇌가 건강하고 잘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지기능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04 운동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신체활동과 정서안정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신체활동이
부족



외로움,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증상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

반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신체활동량
감소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하면 충동을 억제하는 힘도 길러지기 때문에 **산만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특히 운동이 중요합니다.**

05

운동은 자녀의 성향을 바꿉니다.



1

계획을 세워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자녀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2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단체운동(축구, 야구, 농구 등)은 **사회성**을 높여주고, 양보와 타협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됩니다.

06 일상에서 해 볼 수 있는 신체활동을 찾아주세요.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에서 간단한 신체활동을** 늘려보도록 권유해주시요.

예를 들면, **심부름, 청소, 세차 돕기 등 가정에서의 생활 활동에 자주 참여**시켜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스트레칭**과 같은 규칙적인 몸풀기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보는 것도 단순한 미디어 활동과는 다를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도 실내보다는 야외**로 정하여 가능한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07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

1

비활동적인 어른들 :

자녀에게 운동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같이 걷거나 움직여 주세요.

2

에너지가 부족 :

운동은 기운이 있어야 하기 보다는 운동을 하면 기운이 나요!

3

주위 친구들이 운동을 즐기지 않음 :

처음부터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같이 시작해 봐요.

4

스스로 운동신경이 나쁘다고 생각 :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5

운동에 자신감이 없고 잘하지 못한다고 놀릴까 봐 :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늘어요!

6

미디어 (핸드폰, 게임, 유튜브) 사용시간 :

운동을 하고 와서 이완을 위해 잠깐만 해요!

08 자녀의 운동을 돕는 방법

1단계 : 운동 선택을 도와주기

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단순한 운동(걷기, 계단 오르기, 애완동물과 산책 등)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해보고, 강도를 높여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을 같이 단계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2단계 : 운동의 생활화를 도와주기

어 자녀가 원하지만 혼자 선택할 수 없는 운동을 부모가 함께 시작해주면 용기가 생깁니다.

3단계 :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는 자녀를 응원하기

어 운동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운동으로 인한 몸매나 체중에 대한 결과물에 목표를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자녀를 꾸준히 격려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운동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542) 에 문의해주세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6호이며,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